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43)

## 상벌불공(賞罰不公)

상주는 것과 벌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공동체 사회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상벌(賞罰)이 있다. 공동체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이나 목표를 향해 가는데 좋은 업적을 가진 사람에게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공동체가 이상적인 목표에 잘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것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벌은 중요한 수단이다.

물론 상이란 반드시 상장을 주거나 상금을 주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벌이라고 하여 반드시 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잘 한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상을 받고 잘 못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상벌의 시행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의 통념으로 자리 잡는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가 바로 이 상벌의 불공정이 아니었나 싶다. 어느 교수출신 권력자가 자신의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던 것이 밝혀지는 바람에 이 불공정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었고 여기에서 촉발된 문제는 결국 당시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검찰총장이 국민적 영웅이 되어 급기야 대선에까지 나서게 되었다. 그만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회정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사실 이 불공정문제는 비단 오늘날에만 특별히 나타난 것은 아니다. 황제가 통치하던 전제군주시절, 황제의 말한마디면 그것이 바로 법이었던 시절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들고 일어났다. 남송의 첫 번째 황제 고종(高宗)이 금(金)에게 쫓겨서 항주(杭州)로 갔을 때 일이다. 이때 불공정을 문제로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고종이 항주로 도망 나오는데 이를 응위(擁衛)하던 책임을 진 사람이 효종통제(扈從統制)·정주단련사(鼎州團練使)인 묘부(苗傅, ?~1129)였는데, 그가 군사를 가지고 정변을 일으킨 것이다. 황제를 호위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 그 호위병사를 지휘하여 정변을 일으켰으니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는 황제의 처사가 지나치게 불공정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고종이 왕연(王淵, 1077~1129)을 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로 제수하였는데,

이것을 본 묘부 등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묘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집안은 대대로 무관 집안이어서 금군(金軍)의 침략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벌떼같이 일어난 도적들로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적에 가장 큰 도적인 정진을 항복시킨 큰 공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논공행상은 없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환관 강리(康履, ?~1129)가 권력을 휘두르며 인사(人事)를 전횡하자 악착빠른 왕연은 이들 환관과 가까이 하더니 황제인 고종의 눈에 들어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추밀원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사실 묘부의 눈에 거슬린 것은 이 일뿐이 아니었다. 고종이 양주에서 항주까지 몇 달 며칠을 도망 오면서 때로는 이 부자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날도 있을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심부름꾼이라 할 환관들은 오리 사냥을 하며 놀았고, 항주에 와서는 대로를 가로막고 자기들이 거쳐갈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 높은 사람이 와도 맨발차림으로 있는 등 전혀 예의를 차리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눈에 거슬려 기병(起兵)을 한 것이다.

묘부 등은 신종황제(神宗皇帝)의 기일(忌日)을 이용하여 기병하기로 하고, 이날 퇴조(退朝)하는 왕연(王淵)을 다리 밑에서 기다렸다 끌어내리고 그가 환관(宦官)과 결탁하여 모반(謀反)하였다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다. 그리고 강리의 집을 포위하고 병사를 나누어 내관(內官)을 체포하였는데 무릇 수염이 없는 사람은 모두 죽였다. 환관에 대한 원한이 애꿎게 환관이 아니면서 수염이 안 났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생겨난 셈이었다.

묘부는 저자에 방문(榜文)을 게시하고 바로 군사를 데리고 행궁의 북문 밖에 도착하였는데 위사(衛士)들이 칼을 꺼내자 묘부 등은 드디어 문 아래에 군사를 펼쳐두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강리를 내 놓으라고 요구하였고 고종은 하는 수 없이 강리를 내 주었다. 묘부 등은 강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종에게 퇴위하고 황태후에게 수령 청정하라고 요구하였다. 황태후가 직접 이들을 만나서 담판하였지만 이들은 요구를 철회하지 아니하였다.

이 상황에서 고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퇴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세 살짜리 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황태후가 수령청

정하는 조건으로 겨우 병변을 일으킨 묘부 등의 군사에게 원래 주둔지로 돌아가게 하였다.

물론 조정에서는 이들의 군사정변이 옳다고 하여 물러 선 것은 아니다. 당장 군사를 가지고 위협하는 바람에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을 뿐이다. 또 이들이 불공정을 이유로 내세웠다고 하여도 군사를 일으킨 것을 옳다고 볼 수는 없었다. 원래의 법대로 한다면 이들은 범법자들이다. 그러나 원래 공정성을 지키는 정사를 처리하여 부당한 인사, 부당한 처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면 군사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불공정을 내버려 둔 탓에 또 새로운 범법자를 만들었고, 다시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등 복잡한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었다. 처음에 불공정을 저지른 자나, 이 때문에 화가 나서 군사를 일으킨 사람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이로움은 없었고 오직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손실만 입혔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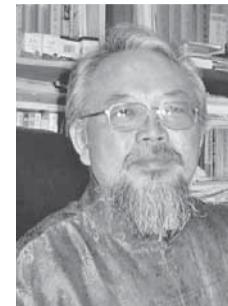
우리의 70년 역사에서도 이러한 불공정 때문에 많은 큰 사건을 경험하였다.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을 낳았고, 이어서 나타난 공정여부를 기할 수 없는 무질서 속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이후로도 쉬지 않고 불공정의 문제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번에는 결국 부모 찬스를 쓰는 불공정에서 촉발된 공정의 문제는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불공정의 문제는 예나 오늘이나 사람을 흥분시킨다. 만약에 정부가 앞장서서 불공정을 저지르는 세상이라면 비록 정부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참지 못하고 일어난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았다. 그러하니 역사를 조금만 공부했다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불공정이 드러나는 날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몰락시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권력을 잡으면 불공정한 방법으로 개인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으니 참으로 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이러한 안목으로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자신도 멸망하고 사회도 후란에 빠지는 후유증은 심각하다. 이번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제발 역사를 거울삼아 공정문제로 사회의 역량을 소비하지 않게 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lt;특별기고&gt;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20)



올해 상춘(上春:조봄) 경칩(驚蟄) 날(3.5)은 이른바 '좋은 날'인지, 가까운 지인들의 자녀 혼인(婚姻:장가고) 시집가는(식 청첩장(卡託))이 3곳에서 왔다. 이론부터 4일이 지나면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그러나 최근 북경(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중화제국주의)와 영국 심판의 오심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침공/평화) 시비로 미국을 비롯한 나토(NATO) 서방 강대국들과 연합한 나라들의 전쟁(제재/방어) 등으로 불안한 마음이, 우수(雨水) 절기 날짜가 몇 날이 지났건만 방송에서 각 지역 한파경보·주의보 등등에 우수(憂愁)로 이어지는 마음이다.

하지만 심기일전하여 이번호부터 단군 성조의 건국이념 이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근본 바탕으로, 본 특별기고의 제목에 보다 더 부합하는 인문학적 선성현철(先聖賢哲)의 인물 중심으로 그 시대와 오늘날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분석조명하여 보다나은 미래의 대동(大同)세상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여말선조(麗末鮮初 : 고려말 조선초)의 조선 중기에 당대 은일(隱逸)로서 성리학자로서 '송도삼절(松都三絕 : 서경덕·황진이·박연폭포)'의 하나인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의 고제자로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藩, 1517~1578), 초당(草堂) 허엽(許暉, 1517~1580), 사암(思庵) 박순(朴淳, 1523~1589) 등이 있다. 화담학파의 학풍은 개성(송도松都)의 지역적 특성 연관하여 유학에 더하여 불교와 노장사상(老莊思想) 그리고 상수역학(象數易學) 및 상업이나 과학적인 사고로 실학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토정은 선조(宣祖) 때 경기도 포천과 충청도 아산의 현감으로 민본사상과 애민·휼민정신의 실천적 선정관(善政官)으로 실학적 학풍이 있었다.

그리고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과 그 수제자인 내암(來庵) 정인홍(鄭仁弘, 1535~1623) 및 남명과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양문(兩門)의 고제자인 동강(東岡) 김우옹(金宇翁, 1540~1603)과 한강(寒岡) 정구(鄭九, 1543~1620)의 제자와 사숙으로 실학적 학문 경향성이 근기남인(近畿南人)의 융주 조경·미수 허목에서 성호 이익으로 계승되었다. 한편 화담의 역학사상은 상춘(象村) 신흠(申欽, 1566~1628)의 상수역학과 관련이 있는데, 상춘은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 1499~1547)와 서간

(西潤) 이제민(李齊閔, 1528~1608) 양문의 제자로서 비록 서인(西人)이지만, 학문경향성에서 양평학적 요소와 한학(漢學)을 재평가하고 주자학을 조선 중기 당시의 학풍과는 다르게 상대화한 점은 실학적 요소로 평가된다.

성호의 제자들과 후손들 가운데 신서파(信西派)인 녹암(鹿庵) 권철신(權哲身, 1736~1801)·정현(貞軒)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과 연경재(研經齋) 성해응(成海應, 1760~1839), 주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 등의 조선후기 실학적인 유학연구 학풍인 '한송절충론(漢宋折衷論)'과도 연결이 된다고 본다.

조선 중기 이른바 '목릉성세(穆陵盛世 : 선조의 41년간, 1568~1608)'라는 선조연간에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당시는 사대사화를 거치고 조선조의 중흥기와 아울러 임진왜란을 겪는 격동의 시기가 인재 배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토정 이지함은 자(字)가 형중(馨仲), 호는 토정·수산(水山)이다. 본관이 한산(韓山)이 고려 말의 대학자이며 삼은(三隱)의 1인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 부인 안동권씨(安東權氏)의 후손, 어려서 부친 현령(증 판서) 이치(李賛)를 여의었고 큰형 성암(省菴) 이자번(李之蕃, ?~1575)의 보살핌과 학문을 배우다가 화담을 스승으로 모셨다.

당시 정국(政局)과 사회풍조가 종종 때 기묘사화(1519) 이후와 명종연간(이부파하여, 선비 학자가 벼슬하기 위하여 과거를 보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였다. 당시 나라에 뛰어난 학문과 뜻을 지닌 대표적 사림이었던 화담, 남명, 일재(一齋) 이향(李恒, 1499~1576) 등은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고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꺼렸다.

이지함은 당시 정국의 혼란과 개인적인 문제(장인이 종실로서 역적으로 무고를 당함)로 과거에 응하지 못하다가, 혼탁하고 부패한 명종 시대에 선조의 등극으로 정국이 쇄신되고 사립파가 서서히 중앙정계에 등장하던 시기인 선조6년(1573) 5월에 선조가 명하여 이조로 하여금 명경행수(明經行修)의 '탁행자(卓行士)'를 추천하게 하였다. 바로 여기에 뽑히어 일명 '오현사(五賢士)'로서 그의 학문사상과 그 인품이 당대에 일류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었고, 당시 과거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고 종종 때 현량과 (賢良科)의 새로운 양상이었다. 이로 인해 토정은 57세로 서 출유(出六)의 품계로서 관계에 처음 나아갔다. 선조7년 8월에 포천현감(종6품)으로 나아가 1578년 7월에 아산현감으로 있다가 병으로 62세로 죽(卒)하였다.

&lt;다음호에 계속&gt;

### 권애임 원장

### 2021년 한국 인성교육 진흥 교육대상 수상

권애임 순천시 애이미외국어 교육학원장이 (사)한국문화복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한국 인성교육 진흥 대상 시상식에서 성교육 확산 및 지역 공동체 발전과 미래세대의 참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 받아 교육대상을 수상했다.

권애임 회장은 평소 지역 불우시설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무료교육을 수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중 셋째 아이부터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 사무실과 원룸 임대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의 사무실과 원룸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여 안내하오니 입주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대종회에 소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회관공실 임대안내

임대할 부분	면적
사무실 201호	30㎡ (약 9평)
원룸 306호	20㎡ (약 6평)
원룸 401호	20㎡ (약 6평)
원룸 402호	20㎡ (약 6평)
원룸 403호	20㎡ (약 6평)
원룸 404호	20㎡ (약 6평)
원룸 406호	20㎡ (약 6평)
원룸 옥탑방	18㎡ (약 5평)

◎ 회관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용두동 102-196)  
◎ 연락처 :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 제기동역 6번 출구 바로 앞 (1분 거리)

## 안동권씨 대종회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 대종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안동권씨 대종회